

'갑짜기?' 번개토론

일시 : 20211001 _1900/2030

장소 : 온라인 zoom

참가대상 : 시대전환 누구나

방식 : 퍼실리테이터 진행하에 자유 토론



토론주제

지정토론 주제 : 언론중재법

자유토론 주제 :

- 시대전환의 비즈니스 모델
- 적절한 '자유'의 범위는 무엇인가?
- 선거법 개정 더 늦기전에 해야하지 않나?

contents

1. 아이스브레이킹
2. 그라운드룰 셋팅
3. 주제토론 : 빠띠카누 리뷰 후 자유토론
4. 자유토론 : 제안자 문제의식 공유 후 자유 토론

아이스브레이크킹

1. 이름 / 좋아하는 음식 / 별명
2. 오늘 하루 가장 많이 입으로 했던 단어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1. 최태성님

- 좋아하는 음식 : 순대국밥, 한식 중에서 가장 든든하게 먹는 것
- 별명 : 타즈 '시와 소설'을 쓰는 작가를 지망하고 있다. 필명으로 타즈라고 정하고 있다.
- 하루 가장 많이 했던 말 : 집에 빨리 가고 싶다.

2. 권대욱님

- 권대욱/싸구려스카치위스키/미래백수
- 목(Mock) : 업무 중 했던 말이네요.

3. 문지성님

- 문지성 / 족발 / 버드나무(어감이 좋아서요^^)
- “네 문지성입니다.” 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자주 하다보니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4. 서기정님

- 좋아하는 음식 : 무화과
- 별명 : 서키
- 하루중 가장 많이 한 언어 : 안녕하세요.

5. 민경인님

- 민경인/달콤한 것들/낭만민네이션
- 하루 중 가장 많이 한 언어 : 네 그렇게 할게요~!





그라운드 룰 정하기

1. 느리게 말해도 봐주세요~!!
2. TMI 관찮아요!
3. 솔직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좋더라구요.

주요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찬성과 반대

시대전환 비즈니스모델

다음시간에 진행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적절한 자유란 무엇인가?

다음시간에 진행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장기적 안목과 단기적 대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안

언론중재법 과한가요?

<주요 내용 및 쟁점>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최대 5배)
- 언론보도의 위축 등 언론의 자유에 악영향 우려 : 법안이 규정하는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인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란 지적
-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둬 : 이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민법상 명예훼손제도의 기본 원칙 '피해자 입증책임')
- 절차적 문제제기 : 야당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법안소위 안건 기습 상정 및 강행처리를 해왔음oto Sans CJK KR Medium, 크기는 17입니다.



건강한 언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언론중재법 과한가요?



찬성논리

- 일반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진영논리로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동작이 될지? 일반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토론에 대해서 공개된 것이 없다. 언론과 함께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법안 자체의 취지는 충분히 찬성하지만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지나고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권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반대논리

- 징벌적 손해배상이 민법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처벌'이 아닌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잘못 설계가 된 것 같아요.
- 이걸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긴 대화와 타협 과정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정부에 아쉬운 점은 절차의 준수와 숙의입니다. 1. 다수당의 횡포 / 2. 강력한 규제입니다. 언론중재법은 규제의 차원에서 너무 강한 규제라 국제사회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공론장에 모아서 끝장토론을 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 오히려 보도의 위축만 가지고 올 것이다. 물론 가짜 뉴스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언론사만의 문제인가? 이것은 언론 생태계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 일반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진영논리로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동작이 될지? 일반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토론에 대해서 공개된 것이 없다. 언론과 함께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법안 자체의 취지는 충분히 찬성하지만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건강한 언론을 만들려고 언론중재법이 나왔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닐까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건강한 언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언론중재법 과한가요?

절차적 문제

- 절차적 문제에 관련해서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토론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힘이 반대만 외치지 대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 내 용을 받아서 여야가 합의하기는 했다라고 했다.
-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서 야당은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토론이 부족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소극적인 것 같다. 신중한 것인지 혹은 합의와 협의는 다른 것 같다.

대안과 방법

-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슬픈 일'인 것 같다.
-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여서 건강한 토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면 좋겠다.
-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시대전환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하게되었어요.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가진 지금의 문제들은 그 속도가 우리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하지만, 현상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 법도 필요하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시대전환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문제해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라는 토론보다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언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01

- 시대전환의 비즈니스 모델

- 문제의식
- 해결방안
- 프로덕트

02

- 적절한 '자유'의 범위는 무엇인가?

- 자유란 무엇인가?
- 자유는 왜 필요한가?
- 적절한 자유는 무엇과 연결되기에 중요한가?

03

- 선거법 개정 더 늦기전에 해야하지 않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선거법 개정이 먼저인 이유가 있는가?
- 선거법 개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선거법개정 더 늦기전에

문제의식

- 21대 총선을 치른지가 2년이 다 되어 간다.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분명하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 이제 슬슬 무엇인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 2년반 후에는 또 총선을 치러야 할 텐데 또 어거지로 무엇인가 통과되는 것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 이번 대선에서 선거제도 개편(투표연령 조정과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논리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를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찬성을 합니다. 독일형이나 뉴질랜드형이나 중요하다.
- 위성정당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의 소수정당의 참여의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느정도 시대전환이 국회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 나와도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면 의지가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별로 소수정당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 양당구조를 깨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구가 개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한 선거법, 양당구조깨는 것도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의 원내 진입은 큰 성과이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깨는 것도 중요하다. 대선과 지선에 따라서 '총선'판이 달라질 것 같은데, 비례대표제는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논리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 위성정당으로 원내에 진출한 것은 신념윤리는 아니지 않은가?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더 늦기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논리

- 한국적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제는 과연 우리나라랑 맞는가? 단원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제도와 연결된다.
- 양식 유효성 검사를 찾기 어려움

기타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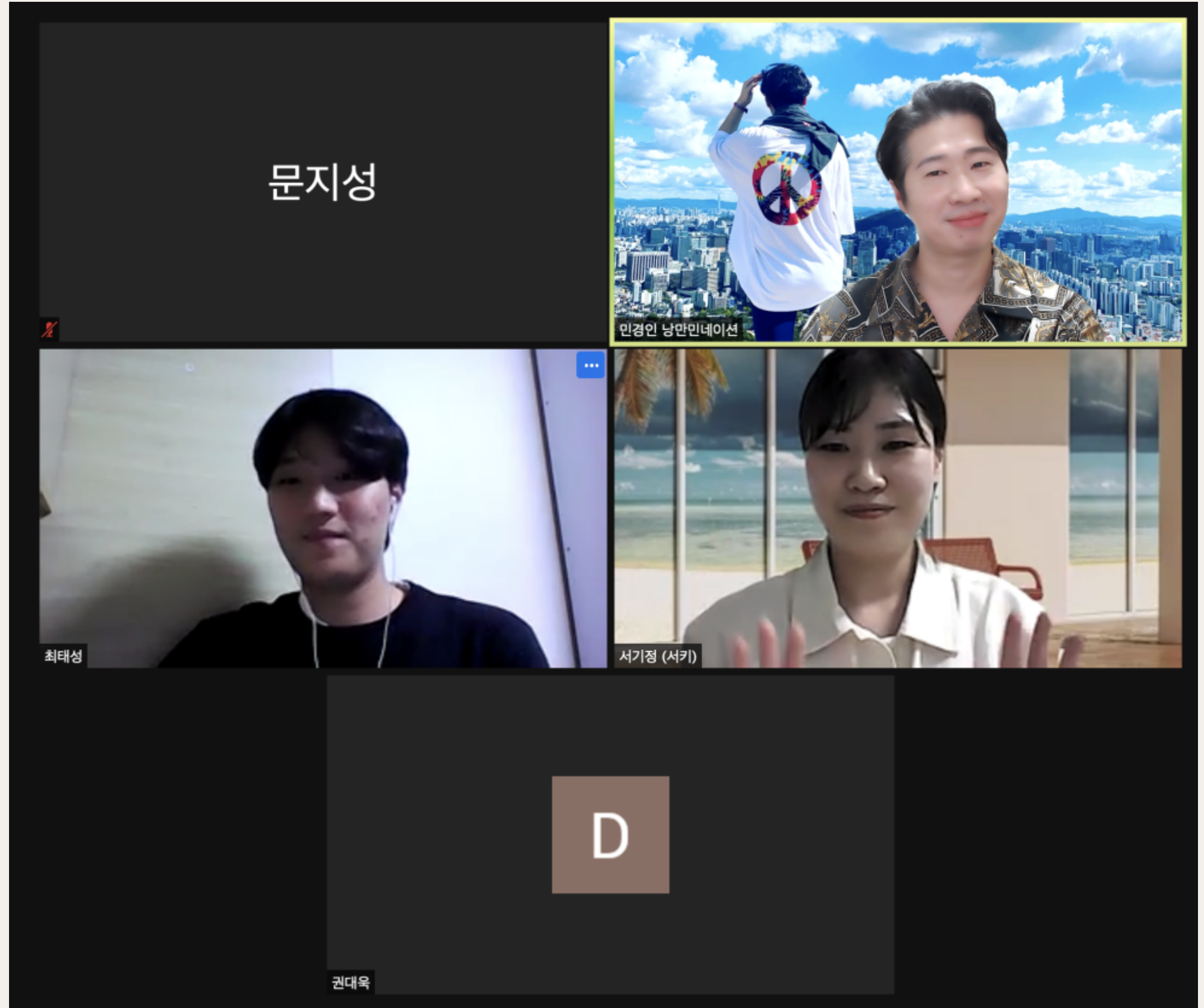
- 이번 대선에서 선거제도 개편(투표연령 조정과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 정치 체제와 양당의 성격이 미국과 많이 닮아있어서 넘어야 할 산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 정치 체제와 양당의 성격이 미국과 많이 닮아있어서 넘어야 할 산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 기억을 더듬어보면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던 총선도 있었으니 이번 대선/지선 및 다음 총선을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제는 현재 당의 소속에 따라서 편이 갈라지고 이것이 양당대립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생각해보면 유권자로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제도의 로드맵_선거제도가 먼저인가? 권력구조가 먼저인가?
- 둘다 좋을 것 같다. 현실의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어내면 좋겠다.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선거제도는 나쁜 현상들을 없애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 장면정권에 한번만 있었고, 지금까지는 연합정부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들이 바꾸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대전환

1차 번개토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참가자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갑짜기?' 번개토론

일시 : 20211001 _1900/2030

장소 : 온라인 zoom

참가대상 : 시대전환 누구나

방식 : 퍼실리테이터 진행하에 자유 토론



토론주제

지정토론 주제 : 언론중재법

자유토론 주제 :

- 시대전환의 비즈니스 모델
- 적절한 '자유'의 범위는 무엇인가?
- 선거법 개정 더 늦기전에 해야하지 않나?

contents

1. 아이스브레이킹
2. 그라운드룰 셋팅
3. 주제토론 : 빠띠카누 리뷰 후 자유토론
4. 자유토론 : 제안자 문제의식 공유 후 자유 토론